

기관단체 소식

■ 한국가금학회 총회 및 세미나 - 오봉국 회장, 부회장 등 전원 유임 -



(오봉국 회장)



(조병률 박사)

한국가금학회는 8월 17일 건국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오봉국회장을 비롯한 현 회장단을 전원 유임시켰다.

오봉국회장의 인사말, 건국대 한석현 축산대학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날 총회는 85년도 사업경과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에 이어 임원개선에 들어갔다.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학회고문 이재근박사가 임원선출방법을 묻자, 회장단을 전원 유임시키는 안을 제기,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총회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열린 세미나에는 영남대 여정수교수의 「최근 가금육종연구 동향」, 전북대 최진호교수의 「난각의 질에 미치는 요인」, 서울대 오봉국교수의 「계란과 육계의 유통규격 설정」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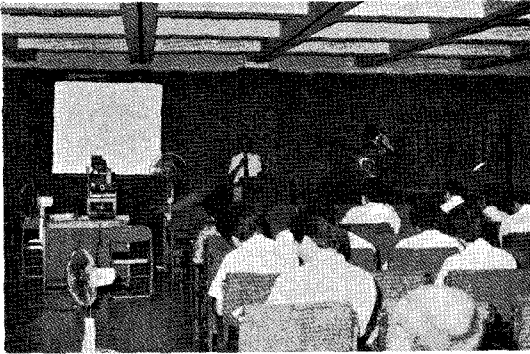
이어 조병률박사의 양계질병에 대한 특강이 있었

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현재 미국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마렉병 브레이크와 육계질병중 골격이상, ART 호흡기병, MAS, SDS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마렉병 브레이크의 원인으로는

- 사람의 백신취급 잘못—수송, 보관, 희석 등의 잘못
- 강독 바이러스 질병에의 조기감염—HVT백신 접종후 10~14일이 경과해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10일 이전에 강독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공기에 의해 쉽게 전파되며 일단 감염되면 6개월 동안이나 바이러스가 먼지중에 생존한다.)
- 모체면역—종계에 백신접종을 하므로 면역항체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CC에 백신을 접종할 경우 세포결합성일 때는 면역성이 별로 떨어지지 않으나 동결 건조백신의 경우 간섭현상으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고 주사액도 2~3배 증가하는 것이 좋다.
- 백신 바이러스 감염의 소실—HVT백신을 닭에 접종하면 보통 20개월 정도 유지되는데 닭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가끔 중간에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미국의 경우 4~5개월이 지나 육성이 끝나고 발병하여 골치를 앓는 경우가 있다.)
- 변이형 MD바이러스—바이러스중에는 병원성



이 없거나 예외적으로 특히 병원성이 강한 바이러스가 있으며 최근 발견된 바로는 변이형이 있어 이 경우 백신을 접종해도 효과가 절반에도 못미쳐 HVT 백신과 비병원성 백신을 섞어서 예방접종하는 경우도 있으나(상품명 S B- 1) 반드시 HVT 백신보다 효과가 좋다는 과학적 확신은 없다고 보며 현재는 미국에만 존재가 확인되고 있어 한국에도 있는지는 의문이다.

•마렉백신의 큰결점은 1 마리씩 주사해야하는 불편과 세포결합성백신이 동결건조백신보다 좋지않은 수송이 어려운데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 양계백신은 작업이 간편하고 감염을 방지하고, 유전적으로 질병에 걸리지 않는 강건한 품종의 육종이 시급하다.

이밖에도 육계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질병에 대하여 육계에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질병들로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골격의 문제

•장골의 이상(Long bone deformity) - 품종에 따라 다르겠으나 자라면서 다리가 뺨뺨어지는 병으로 6 주전에 밖으로 다리가 휜다. 미국에서는 Twist Leg라 부르며(유럽에서는 Valgus라 칭함) 심한경우 5% 이상 나온다. 아직 정해진 병명도 없으며 많은 학자의 추측으로는 육종시 살붙임이나 잘자라나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 체중에 비해 다리발달이 늦은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있다. 특정 품종에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유전적 요인

은 사실이다.

- Rickets
- 경골발육부전
- 하신불수-척추이상으로 일어서지 못하고 날개만 퍼덕거리는 병

2) ART

칠면조 병아리에 많이 나오며 산란계, 육계 초생주에서 발견되는데 일종의 호흡기성 또는 대장균에 의한 질병으로 보는데 합병증이 되어 심하면 20%까지 폐사가 난다. 미국에서는 현재 백신이 개발되어 있다.

3) MAS (Malabsorption Syndrome)

영양흡수가 제대로 안되어 유난히 발육이 부진하다. 노랗게 되어야 할 다리색이 푸른색을 띠며 흔히 레오바이러스(reovirus)가 나오는데 원인은 불명이다. 어느 병원체가 병인체인지 분리하지 못했다.

4) SDS (Sudden death syndrome)

flip over라 칭하며 잘자라던 닭이 갑자기 버둥거리다 죽는다. 심한 경우 5%까지도 나오는데 잘자라던 좋은 닭에서만 나와 경제적 손실이 크다. 병리학적으로 순환기계의 이상 현상이다. (일종의 심장마비)

참고로 미국에서는 Perosi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Perosis (slipped tendon)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생기므로 앞으로 결핍증은 chondrodystrophy (연골발육부전증)으로 쓰는 것이 합당할듯 하다.

■ 미 농산물 카탈로그전

- AIMS 세미나도 개최 -

미국 농산물 카탈로그전이 미국대사관 농업무역관(관장 라버언, 이, 브레이밴트) 주최로 8월21일부터 23일까지 미농업무역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미국 각주의 농산물·식품안내 책자, 포스터, 전본물품 등이 전시되었으며 품



△ 미농산물 카탈로그전이 열리고 있다.

목별로 분류된 수출업자 명단도 마련되어 관련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편 전시회 기간중 미국농산물 정보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AIMS(Agriculture Information and Marketing Service: 농업정보 및 마케팅 서비스) 세미나도 겸해서 열렸으며, 비디오와 슬라이드를 통해 미농업무역관(USATO)의 역할과 AIMS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지난 80년 1월 개관 이래 미농산물 및 식품교역의 교량역할을 해온 USATO는 금년 2월8일부터 AIMS 제도를 도입, 농업정보제공과 마케팅 서비스 기능을 크게 강화시켰다.

AIMS 프로그램중 가장 중요한 서비스는 컴퓨터 통신시스템에 의한 Trade Leads의 제공으로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한국의 구매자가 미농업무역관에 구매의뢰를 해오면 농업무역관은 컴퓨터시스템에 의해 즉시 워싱턴에 있는 미농무성 해외농무청에 연결하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요청한 정보를 분류, 준비된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24시간내에 미국 각주의 적정 공급자와 연락하며, 미농산물 공급자가 한국의 구매자에게 연락함으로써 교역이 이루어지게 된다.

아울러 USATO에서는 농축산물의 품질, 선적 시기, 가격, 거래은행 수출업자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Buyer Alert」를 매주 발행하며,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정보를 담은 「Contacts」를 월 1회 발간하고 있고, 부정기적으로 ATO News

letter를 발간하고 있다. 이밖에도 미농업무역관은 농산물공급자 리스트, 팸플렛 등 각종 자료를 비치하고 있다.

위에 소개한 거래알선, 정보자료제공은 일체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전화 732-2601(교) 4188, 778-9115

■ 부정 축산물유통 단속

농수산부는 부정 축산물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농수산부는 지난 8월 27, 8일 전북 이리와 전남 영암 도축장에서 소에게 강제로 물을 먹인후 도축하려던 정육점 주인등 관련자 7명을 적발,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이리도축장과 영암도축장에 대해서도 응분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전남북도에 지시했다.

농수산부는 앞으로 축산물의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 적발 즉시 고발 조치하기로 하고, 관련공무원 및 부정유통 발생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24일 경제기획원 등 4부처장관 공동명의로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 조병률박사 초청 질병간담회

- 8월20일 팔레스호텔 -

조병률박사 초청 양계질병의 발전방향에 관한 간담회가 질병예방의학회(회장 이영욱) 주선으로 8월20일 오후 5시부터 팔레스호텔 서중에서 있었다.

주로 양계질병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조병률박사는 슬라이드를 통해 호흡기질병 및 마력병 연구시의 유의점 등에 대해 한시간정도 설명한후, 참석자들과 전문적 기술상의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병률박사의 강의내용을 요약한다.



〈다리병〉

- 관절상부 tendon 부위의 조사가 필요하다. 심하게 부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 임상적으로 관절을 굽히지 않고 꼳꼳이 서서 걷는 것을 볼 수 있다.
- drumstick 부위의 경골 및 연골세포에 이상이 오는 경우가 있다(perosis)
- 다리힘병(twist leg) - 대개 다리 1 개가 바깥으로 휘는 경우(valgus)와 6 주 이후에 양다리가 안으로 휘는 경우(varus)가 있다. perosis와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연골발육부전증으로 부르는 것이 좋겠다.
- 다리힘병은 원인은 불확실하나 일부 품종에 특히 많다. 체중에는 별 관계가 없다.
- 관절 허부는 이상없으나 관절 상부가 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연골이 지나치게 크게 성장하는 등 경연골 이상발육의 경우이다.

〈백혈병과 MD〉

- 야외 백혈병중 99%가 임파성 백혈병(LL) 으로 MD 증상과 비슷하다.
- 임파성 백혈병의 경우 병리조직학적으로 규칙적인 임파성 세포, 미숙 적혈구가 폐·장기에 나타난다.
- MD는 다리마비, 신경증상을 보이는데 급성의 경우 6 주령 이상에서 발병하며, 4 개월령 이후 발생시 급성 MD와 임파성 백혈병의 육안감별이 불가능하다.
- 급성 MD와 LL은 바이러스 분리로는 감별이

- 안되므로 병리조직학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 MD는 7~8 주에 조기 발생하며, 자연 발생의 경우 빠르면 5 주령에서도 볼 수 있다.
 - LL(임파성 백혈병)은 급성인 경우가 없다.

급성 MD	LL
6 주령 이상	4 개월령 이상
폭 발 적	서서히
신경이상	이상없음
회 색 눈 (눈동자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	정상
튜머 없음	F낭에 튜머
피부에 백혈병증상 (skin leukosis)	피부증상없음
hetero형 임파세포	homo형 임파세포

○ 간담회 참석자

김선중·김수업·김순재·김진구·김화식
남궁선·배성황·신옥희·오경록·유병문
유일웅·이영옥·조성남·최정옥

■ 축산경영안정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
- 10월11일 무역회관 대회의실 -



(유제창 회장)

한국축산경영학회(회장 유제창) 주최, 농수산물 신보 주관으로 제 1 회 축산경영안정을 위한 심포지움이 오는 10월 11일(금) 10:00 부터 무역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12월 축산경영 및 축산정책 이론연구, 축

산경영의 합리화방안과 정책방향제시 등을 통한 한국축산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창립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움에 학계, 관계, 업계관련자 다수의 참석을 바라고 있다.

심포지움 주제발표 및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I. 낙농경영안정화방안 ……유재창박사(축산경영학회장)

좌 장: 이학철박사(영남대, 낙농학회장)
 토론자: 신형태(성대), 강성원(유가공협회)
 김의수(낙농경영연구회)

II. 한우경영안정화방안 ……이병오박사(동아대)

좌 장: 하서현박사(강원대, 동회 부회장)
 토론자: 정찬길(건대), 윤봉중(농수축산신보)
 김남용(낙농육우협회)

III. 양돈경영안정화방안 ……김철호교수(충남대)

좌 장: 윤희직박사(건대, 식품유통학회장)
 토론자: 정승래(축협), 한백룡(양돈협회)
 조광호(전남대)

IV. 양계경영안정화방안 ……박영인박사(USFGC)

좌 장: 오봉국박사(서울대, 한국가금학회장)
 토론자: 김영철(건대), 권 배(사료협회)
 노영한(양계협회)

V. 축산물유통안정화방안

……조용희박사(영남대, 축산경영학회 부회장)

좌 장: 성배영박사(농경연 부원장)
 토론자: 권원달(충북대), 김형화(건대)
 최병인(매일유업)

가금처리협회 간담회 개최

- 8월23일 협회사무실에서 -

가금처리협회(회장 김달성)는 지난 8월 23일 오후 6시 신설동소재 사무실에서 임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도계산업전망 및 당면과제에 대한 세미나 및 간담회를 가졌다.

임원 13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미국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 박영인 회장의 도계산업전망 및 당면과제, 본회 황인옥 전무의 국제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성향상 및 양계협회 닭고기소비 촉진

홍보에 대한 발표가 있은후 현안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 농산물유통 교육원 개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상, 중개인 등 유통관계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전담할 농산물유통 교육원이 8월 23일 농개공 산하 종합식품연구원에 문을 열었다.

이 유통교육원은 앞으로 농축산물 유통능률 제고, 공정거래질서 확립, 유통인의 자질향상 및의 식개혁, 유통지도요원의 양성, 유통시책홍보 등을 맡게 된다.

■ 보사부 전화번호 변경

보건사회부 식품위생국 전화번호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국 장 실 503-7582
 위생제도과 503-7583
 위생감시과 503-7584
 공중위생과 503-7585
 식 품 과 503-7586

■ USFGC, ASA

USFGC(회장 박영인)와 ASA(대표 이경원)는 지난 8월30일 힐튼호텔 1층 콘벤션홀에서 미국 사료곡물과 대두 생산자 대표 일행 및 TV를 비롯한 대중 매체의 홍보팀이 우리나라의 사료, 축산 및 식품개발상황을 돌아보기 위해 내한한바 국내 관련업계, 학계 등 인사 200여명을 초청하여 리셉션을 개최하였다. 스폰서는 시바가이키 회사였다.

■ 사료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른 업무협의회 개최

사료관리법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협의회가 지난 7월 29일 사료협회 회의실에서 있었다.

시도 공무원, 축협, 회원사, 관계단체 인사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사료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내용 설명, 법령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에 대한 설명이 있은후, 이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 단미사료협회 강습회 개최

- 사료관리법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협의회도 가져 -

한국단미사료협회(회장 양효진)는 8월 20일 단미사료 회원사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유스호텔에서 사료관리법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에 관한 협의회를 갖는 한편, 단미사료 강습회를 개최했다.

이날 다루어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료관리법 개정 해설, 법령 및 업무처리 요령에 대한 질의응답 (농수산부 이창구 계장)
- 국산 단미사료의 어제와 오늘, 내일 (전국대 맹원재 교수)
- 구매자가 본 국산 단미사료 (신촌사료 김정인 전무)
- 사료분석과 검사위배 (축협 사료검사소 이상열 과장, 축산시험장 차영호 분석담당관)

■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화 방안에 관한 심포지움

- 한국축산학회 주최, 10월 19일 사협서 -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화 방안에 관한 심포지움이 한국축산학회(회장 지설하) 주최로 10월19일 오전10시 사료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심포지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개회인사..... 지설하 회장
-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화를 위한 정부 시책 방향..... 행 정부
- 축우의 수급 및 가격안정화방안..... 김강식 장장(축시)

- 돼지의 수급 및 가격안정화방안..... 조광호 교수(전남대)
- 닭의 수급 및 가격안정화방안..... 황인옥 전무(양계협회)
- 우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화방안..... 강승기 상무(서울우유)
- 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방안..... 허신행 박사(농촌경제연구원)
- 축우 생산의 안정화를 위한 자금 사료의 효율적인 생산 방안..... 이종렬 과장(축시)

■ 축산진흥기금 통합움직임

정부는 축산진흥기금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통합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통합시안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축산진흥기금은 축협중앙회가 기금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금이 통합운영될 경우 기금관리자가 바뀌게 될것으로 보인다. 축산진흥기금은 주로 쇠고기 수입판매 차액으로 조성되었는데, 그동안 쇠고기를 수입판매 함으로써 국내 축산물가격에 큰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에 양축가들은 기금이 축산발전에 사용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 농수축산신보사 임익채대표 취임

농수축산신보사는 지난 8월20일 주주총회에서 임익채씨를 대표이사에 선임했다.

신임 임사장은 한국산업은행 비서실장, 삼환기업 및 삼환엔지니어링 대표이사등을 역임하고 현재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자문위원겸 상임위원으로 재임중이다. 한편 동사의 사무실이 아래와 같이 이전되었다.

이전일시: 1985년 9월 6일(금)

이전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동 산 120의 4 일복빌딩 1층

대 화: 대 표 585-0091 사장실 585-0097
 전무실 585-0096 편집국 585-0091
 광고국 585-0092 업무국 585-0093
 총무국 585-0094 출판국 585-0095